

DYER-SMITH FREY

Magazine: **Interni Decor** | Date: 2017 | Project: **Club Lexy. Puro, The Studio**



INTERNI & Dec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LEESTONE
(주)GA
Milwaukee®

JANUARY. 2017



빛을 활용한 공간 프로젝트



전방위 디자이너

DYER-SMITH FREY

취재 최윤정



디자이너 James Dyer-Smith와 Gian Frey가 2010년에 설립한 DYER-SMITH FREY는 하나의 공간을 위해 인테리어부터 가구 디자인, 브랜딩, 웹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스위스의 디자인 스튜디오다. '완벽한 인테리어는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된다'라는 모토 아래, 클래식부터 모던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스튜디오는 직접 가구 제작에 참여해 가구 브랜드 'DSF COLLECTION'을 론칭하기도 했다. 한편 Zürich School of Arts에서 제품 및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두 사람은 서로의 미적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를 발견하고, 6년 전 'Monkey Bar Zürich'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James Dyer-Smith는 전문적으로 목수가 되는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재료 본연의 성질에 관심을 가졌다. "창작은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만의 세계를 펼친다. 한편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Gian Frey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에 이끌려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했으며, 취리히를 넘어 독일 뮌헨의 Architectural Digest Magazine, 이탈리아 밀라노의 Matteo Thun & Partners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이들은 다채로운 콘셉트를 시도하는 가운데 정제된 디자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DYER-SMITH FREY의 디자인은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다. 미적 가치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딛고 선 채 공간 전반의 모든 것에 손을 뻗고 있는 James Dyer-Smith와 Gian Frey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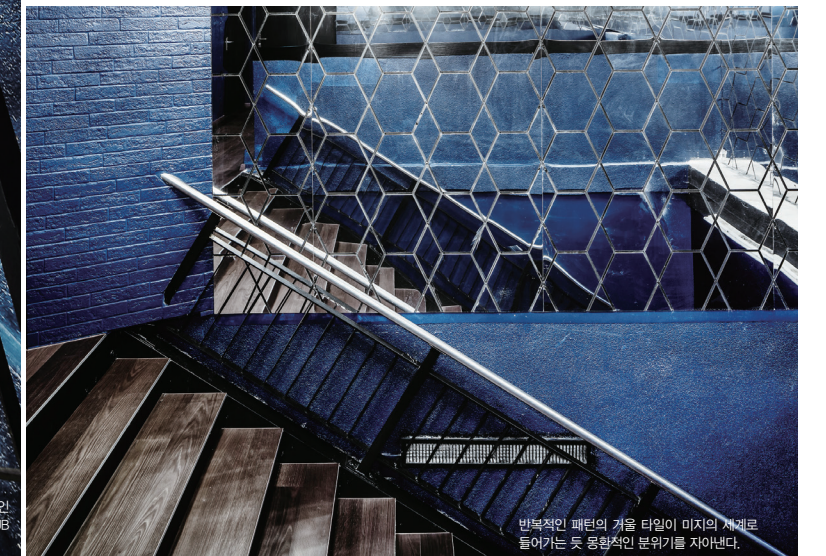


LEXY CLUB

Design / DYER-SMITH FREY · James Dyer-Smith, Gian Frey
 Location / Zurich, Switzerland
 Area / 270m²
 Photography / Idealcomm · Patrick Armbr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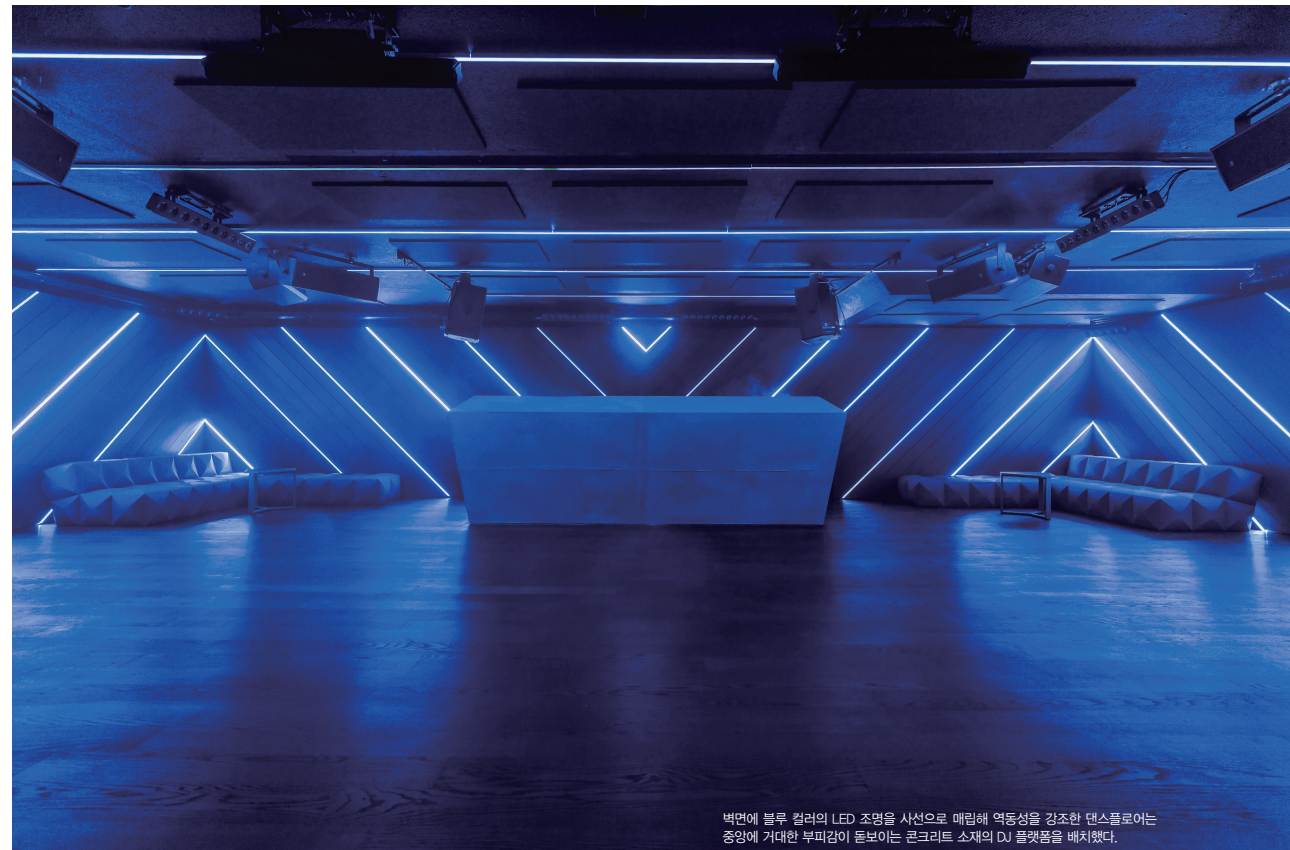
기하학적 구조와 독특한 소재 활용으로 격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디자인 콘셉트가 특징인 댄스 클럽 프로젝트 LEXY CLUB은 디자이너의 과감한 시도가 엿보인다.



반복적인 패턴의 거울 타일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LEXY CLUB

디자이너의 과감한 시도가 엿보이는 LEXY CLUB은 격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디자인 콘셉트가 특징인 댄스 클럽 프로젝트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디자이너는 기하학적 패턴을 다채롭게 사용하고, 선명한 블루 컬러를 주조색 삼아 작업을 진행했다. 공간은 입구가 위치한 1층과 지하의 댄스플로어 및 라운지 바로 이루어 지는데, 거친 표면이 그대로 드러난 콘크리트 벽체와 함께 반복적인 패턴의 거울 타일을 장식한 입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면에 블루 컬러의 LED 조명을 사선으로 매립함으로써 역동성을 강조한 댄스플로어는 중앙에 거대한 부피감이 돋보이는 콘크리트 소재의 DJ 플랫폼을 배치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나타나는 댄스플로어는 블루 컬러의 LED 조명을 사선으로 매립함으로써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음향 및 조명 전문 엔지니어와의 협업으로 DJ 믹서에서 음악과 조명을 함께 조절하도록 고안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유도했다. 더불어 짙은 우드 톤의 강화마루로 바닥을 마감해 공간 전반의 짙은 컬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갖춘다. 거대한 부피감이 돋보이는 콘크리트 소재의 DJ 플랫폼은 모서리를 전면 돌출 시킴으로써 입체감을 살렸다. 기둥으로 구획된 중앙부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아 모서리의 각을 살린 디자인의 가죽 소재 소파 및 테이블을 비치해 시각적 유희를 극대화한다.



음향 및 조명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DJ 믹서에서 음악과 조명을 함께 조절 가능하도록 고안해 극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아 모서리의 각을 살린 입체적 디자인의 소파 및 테이블.



가죽 소재의 소파와 테이블에 적용된 다각형의 패턴은 벽지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구조와 맥을 잇는다.



흰색 우드 톤의 강화마루가 깊이감을 더하는 가운데, 조형미를 살린 가죽 및 벨벳 소재의 업홀스터리가 고급스러운 인상을 전한다.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새장 형태의 황동 소재 라운지 체어.



글로시한 거울과 거친 콘크리트 등 서로 다른 물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댄스플로어에서 이어지는 좁고 긴 공간에는 11m 길이의 바가 자리하는데, 벽면에 날카로운 패턴을 불규칙적으로 조합한 블루 컬러의 벽지를 입혀 생동감 넘치는 콘셉트와 맥을 잇는다. 특히 벽지의 패턴을 본 따 디자인한 사이드 테이블과 새장을 형상화한 황동 소재의 의자는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공간에 재치를 더한다.

LEXY CLUB은 독특한 콘셉트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풀어낸 프로젝트로, 두 디자이너의 최근 작업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공간으로 손꼽힌다.



LEXY CLUB

댄스플로어에서 이어지는 좁고 긴 공간에는 불규칙적인 조각 패턴을 조합한 벽지를 입혀 생동감 넘치는 콘셉트를 표현하고, 11m 길이의 카운터를 두었다.



독특한 콘셉트를 흥미롭게 풀어낸 공간은 두 디자이너의 최근 작업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업으로 손꼽힌다.



카페 및 커뮤니티 라운지 PURO-THE SOCIAL CLUB은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사교 클럽을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PURO-THE SOCIAL CLUB

Design / DYER-SMITH FREY · James Dyer-Smith, Gian Frey
 Location / Zurich, Switzerland
 Area / 190m²
 Photography / Amanda Nikolic



우아한 아치형 창문이 시선을 끄는 2층은 가장집 거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부드럽고 안전한 무드의 풍경이 펼쳐진다.

2층 규모의 PURO-THE SOCIAL CLUB은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사교 클럽을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카페 및 커뮤니티 라운지로 사용되는 공간은 인테리어부터 브랜딩 작업까지 전담한 디자이너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1층은 전체 벽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한 것과 달리, 카운터 뒤의 벽면은 글로시한 블랙 컬러의 벽돌 형태 타일을 덧대었는데, 그 위로 매지한 메탈 소재의 로고는 디자이너가 고안해 심플함이 돋보인다. DYER-SMITH FREY를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인 카운터는 잘 다듬은 황동 소재의 상판을 입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이어서 우아한 아치형 창문이 시선을 끄는 2층에 올라가면, 가정집의 거실을 그대로 가져온 듯 부드럽고 안전한 무드의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공간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라운지 체어와 목재 테이블 및 선반 역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며, 무게감을 더해주는 요소로서 대리석과 벽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에 변주를 꾀한다.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하고자 한 배려가 엿보이는 PURO-THE SOCIAL CLUB은 조화로운 요소들로 오후의 따스한 풍경을 그려낸다.



거친 석재를 표면에 드러낸 벽면이 부드러운 무드의 공간에 변주를 꾀한다.



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반 및 테이블 등은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했다.



따뜻한 톤의 목재와 함께 올리브 컬러를 조화시켜 차분한 무드를 전하는 뉴스 가판대는 간결한 디자인의 선반을 벽면에 세워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THE STUDIO

Design / DYER-SMITH FREY · James Dyer-Smith, Gian Frey
 Location / Zurich, Switzerland
 Area / 480m²
 Photography / DYER-SMITH FREY

스위스의 출판사 Ringier 본사 1층에 위치한 THE STUDIO는 오피스로 이어지는 로비와 뉴스 가판대, 카페를 아우른 프로젝트다. 개방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작업은 출판사 건물에 속해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미팅이 자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방문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뉴스 가판대는 벽면에 간결한 디자인의 선반을 세워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따뜻한 톤의 목재와 함께 올리브 컬러를 조화시켜 차분한 무드를 전한다. 가판대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카페는 스위스 라디오 방송국 ENERGY의 스튜디오가 중앙에 자리해 공개 방송이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개방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THE STUDIO는 다양한 방문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중앙에 자리한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공개 방송이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생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인 카페는 노출 천장으로 개방감을 주면서도 벽면 패널과 마루의 밝은 우드 톤이 주를 이루어 집과 같은 아늑함을 자아낸다. 특히 디자이너는 Tom Dixon의 조명과 브랜드 Minotti, FLEXFORM, B&B ITALIA 및 자체 제작 가구를 일차게 구성함으로써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듯 편집자와 독자, 아티스트와 팬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데 어울리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하는 THE STUDIO 프로젝트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여러 브랜드의 제품과 자체 제작한 가구를 일차게 구성한 카페.



오피스 빌딩에 속해 있는 공간인 만큼, 회의실 형태의 공간을 구획해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하고 장식을 최소화한 오피스 로비는 아트워크가 시선을 집중시킨다.